Serenade (□□□□)

Changmo

1994년 마치 2018년과 비견할만한
더위를 뒤로 숨긴 초여름 , 5월 마지막 날
스물여섯의 당찬 이 여자는 첫 출산에
지쳤지만서도 걔를 봐
96년 "우리 창모는 좀 달라
내가 밖에 나가도 곤히 자곤 해
깨면 그저 조용히 톰과 제리를 보니 "
달력 뜯기고 뜯겨 동쪽 하남시에 와
터를 잡은 그녀의 가족은 이제 세기말에 닿아
1999년 '로봇 갖고싶다요'
'다요 하지 말랬지 ?' '옆집앤 있잖아요'
'참을 줄도 알아야 해 ' 허나 그녀 속엔 맺히기
시작해 평생의 미안함 엄마들만의 특징
잠깐 뒤돌아봐봐
내 나인 갓 아들을 본 그쪽 나이와 같아
걔는 잘 클 테야 아무것도 미안해마
테이프 받아 이 노래가 그댈 위할 테야

날 낳은 그 시간 그 속의
엄마의 나인 나의 나이
날 낳은 후 지난 26년 속 안의
엄마를 향해 불러
세레나데

도무지 참을 수없어
피아노 피아노 거리는 아들의 생떼
물론 양반이지 왈가닥 딴 아들들에 비해
하지만 얜 한번 고집부림 절대 안 꺾지
그때 딱 떠오른 단어 영창 피아노 중고네
아들 짜잔 한번 쳐봐
그녀는 고민들을 했지 내 아들을 피아노 쪽
특히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되게 하도록
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? 또 동시에
가사, 영어 독학, 석사 학위도 땄었지
경제적인 제한, 영어 선생님이 되어
하염없이 간 시간 아인 벌써 십대네
예중고는 못 보냈어도 큰 세계엔 꼭 보내자
제발 우리 아들 꿈만큼은 꼭

하 삶은 왜 대체 이렇게
바램과는 반대로 굴곤 해
오 엄마 나는 바꿀래 삶을
보란 듯이 돈 벌어 행복하고 말래
오 우리 아들 가렴 원하면
단 삶의 본질을 알아채길 원한다 엄만
행복은 거창하지 않아
너를 잃지마 약속 넌 다르니 my son (갈께)

날 낳은 그 시간 그 속의
엄마의 나인 나의 나이
날 낳은 후 지난 26년 속 안의
엄마를 향해 불러
세레나데

Mom
엄마 들어봐 봐요
스물여섯 때 낳은 아이가 친구됐다요

몇만 밖의 mom, 동넨 텅 비었지
그래도 가곤 해 집이 고픈 나머지
우리 엄마 참 사랑한다요
난 이제 뭘 원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
난 단지 보고파 나의 공연이
끝난 뒤에는 너무 많이

Sponzor: www.srovnavac.cz - vyberte si pojištění online!